

기다리는 마음

The Waiting Heart

야고보서 5:7-9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11월 4일 설교

⁷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⁸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⁹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밖에 서 계시니라.

정전과 감사

지난 주간 정전 안 된 집 아마 없으시지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상태가 정전입니다. 정전이 되면 밥도 제대로 못 하고 빨래도 못 하고 텔레비전도 안 나오고 인터넷이 안 되니 신문도 못 보고 저희 집은 전화도 안 됩니다. 불을 못 켜니까 집안은 낮에도 어둑어둑하지요. 시간이 아까워 종이를 꺼내 뭘 끼적여 봐도 잘 안 됩니다. 밥은 잘 먹었습니다. 부탄가스로 냄비 밥도 해 먹고 파스타도 해 먹고 반찬도 만들어 먹어서 배는 안 고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생활이 아니고 생존이었습니다. 사람은 배부르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이들도 불평은 안 하는데 저희도 힘이 드는 지 자꾸 와서 물어봅니다.

늘 있던 게 없어지니까 아쉽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하여간 말도 못 합니다. 그럴 때는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지요. 오늘 예배당에 전기가 들어와 예배를 잘 드립니다. 집에 가면 전기가 돌아온 집들은 환하게 불도 켜고 요리도 하고 빨래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겠지요. 난방도 잘 될 거고요.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다 말씀드렸지요? 감사 말고 간사 말입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주로 누가 합니까? 건강한 사람은 잘 안 합니다. 아픈 사람들이 합니다. 왜요? 아파야 깨달거든요. 그 좋은 걸 늘 누리면서도 모르다가 잃어버린 순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 앞에는 늘 뭐가 붙습니다. “아차!” 주님, 감사합니다! 혹 전기가 안 들어온 분들도 밀린 감사 많이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첫 범죄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에덴동산에 수많은 과일나무를 만드시고는 아담, 하와에게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으라 하셨습니다. 꼭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교활한 뱀이 두 사람의 관심을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나무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신 하나님은 못 보고 안 된다 하신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주신 은혜에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안 주신 데 대한 궁금증과 불만만 있었습니다. 뱀에게 속은 뒤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쫓겨나 버렸습니다. 우리는 주님 은혜가 있으니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허리케인을 왜 보냈느냐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평소에 주시는 모든 것, 전기든 난방이든, 따뜻한 차 한 잔이든, 맑은 공기든, 함께 앉은 식구든,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탁기도 고장 난 다음 짜증내지 말고 웅웅웅 소리가 날 때 거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뭘 기다리나

늘 있던 전기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영원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곧 다시 옵니다. 그래서 정전이 되면 기다리지요. 뭘 기다립니까? 전기가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겪는 모든 불편한 게 다 전기 하나가 없어 생기는 거니까 전기 하나만 다시 오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는 건 뭘가 없다는 말입니다. 결핍입니다. 전기가 이렇게 있으면 안 기다립니다. 없으니까 기다립니다.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곁에 없으니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월급날을 기다리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지요. 돈아 남아돌 것 같으면 월급날이 언제인지도 모를 겁니다. 없으니까 기다립니다.

없다고 다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두 주 전에 허리케인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 때는 허리케인이 아직 없는 상태고 곧 온다 했지만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건 없어도 됩니다. 기다리기는커녕 오지 말았으면, 그냥 없어졌으면, 다른 데로 갔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러니 없다고 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없어서 아쉬울 때, 현재 상태로 만족이 안 될 때 기다립니다. 그러니 기다림 속에는 현재에 대한 불만족이 늘 담겨 있습니다. 뭘가 없어서 아쉽고 답답합니다. 그 불편함, 불만을 없애자면 그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솨음칠 그 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하랴이면/ 나는 밤하늘에 날으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소설 <상록수>로 유명한 심훈의 시 “그 날이 오면”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광복의 그 날을 이렇게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이웃 나라에 짓밟혔으니 먹고사는 문제에다 억울한 일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빛을 되찾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광복만 되면 없어질 것이기에 그 날을 기다린 것입니다. 날이 추우면 봄을 기다리고 몸이 아프면 낫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이유

꼭 나라가 식민지가 되고 허리케인 때문에 전기가 나가야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사실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어제도 기다렸고 오늘도 기다립니다. 내일도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현재는 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지요. 기다림은 현재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됩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현재가 만족스러울 수가 없지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허리케인 같은 자연재해도 그렇지만 사람 사는 세상을 보면 모순이 많아도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닙니다. 이 좁은 지구 한쪽에서는 못 먹어 죽어가고 한쪽에서는 너무 먹어 죽어갑니다. 세상에 억울한 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 다 못 합니다.

현재가 마음에 안 들 때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거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아, 옛날이여! 그 때가 참 좋았다는 거지요? 문제는 뭘니까? 과거가 아무리 좋았다 한들 지금 있는 문제를 전부 해결한 이상향은 아니었습니다. 유럽 역사에서 로마제국 초기에 있었던 팍스 로마나, 곧 로마의 평화를 최고의 황금기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치도 안정되고 먹고사는 문제도 큰 어려움이 없고 전쟁도 별로 없이 평화롭게 잘 지냈습니다. 문화도 당연히 많이 발달했지요. 그렇지만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병에 걸리고 다치고 죽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이웃끼리 싸우는 일 살인 강도 강간 같은 죄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기독교인들은 나라에서 금지한 종교를 믿는다고 박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리 멋진 황금기였다 해도 인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과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는 대신 앞날을 기다립니다. 지금의 문제가 다 사라지고 모든 아픔 모든 답답함이 다 사라질 어떤 날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시간이라는 틀 속에서 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특징입니다. 시간을 느끼는 시간의식이라는 게 없다면 지금이 아쉽다 해도 앞날을 기대하는 마음은 안 생길 겁니다.

구원을 기다림

현재는 언제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생은 기다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문제 가운데 가장 큰 게 뭘겠습니까? 돈 없는 것도 답답하고 몸이 성하지 못해서도 괴롭지만 가장 큰 불만, 사람이 외면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죽음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온 것도 이상하지요. 그렇지만 그건 나도 모르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 온 내가 언젠가는 죽어야 됩니다. 이 삶을 그만두어야 됩니다. 죽을 거면 애초부터 나질 말든지 태어났으면 안 죽고 계속 살아 있어야 되는데 왜 끝을 봐야 할까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기다림일 수밖에 없고 그 기다림의 대상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곧 구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해방되는 것도 구원이요 몸이 고통을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지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 곧 진짜 구원은 사람이라면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 곧 죽음의 문제를 벗어나는 그런 구원입니다.

기다리는 이걸 배워 알게 된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다 죽는구나, 아 그렇다면 구원을 기다려야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속에 있는 빈자리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죽음을 비롯한 온갖 고통이 계기가 되어 깨닫는 것입니다. 특히 죽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벌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죄 때문이지요.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 두렵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담긴 죄의식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물 길는 게 힘들었던 여인, 그러니까 먹고사는 문제가 고되었던 여인입니다. 결혼을 다섯 번이나 실패하고 지금은 남편 아닌 남자랑 살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마구 갈아치웠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었지만 여자는 그렇게 못 하던 세상입니다. 다섯 번이나 버림을 받았으니 기구한 운명이지요? 세상이 어떻게 만족스러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여인과 대화를 조금씩 풀어 가시는데 보니 여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 길러 안 와도 되는 그런 세상을 바라는 것도 같고 나를 안 버릴 남자를 기다리는 것도 같더니 결론은 뭘었습니까? 메시야였습니다. 마음 깊은 곳까지 가 보니 거긴 참 구원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현재에 대한 불만은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구원의 날을 기다리게 만듭니

다. 이 여인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사람 사는 어디나 이 기다림의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 가운데 대표적인 하나가 종교 아니겠습니까? 세계 어느 종교에 가도 이 기다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종교에서는 오시리스라는 선한 신과 세트라는 악한 신이 투쟁을 벌이는데 악의 신 세트가 이깁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거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시리스의 아내 이시스가 나서는데 남편을 죽인 세트에게 복수하고 위로를 얻기 위해 이시스는 아들 호루스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불교에도 그런 게 있지요? 먼 훗날 나타나 인류를 구원할 부처를 불교에서는 미륵이라 부릅니다. 석가모니가 열반하고 오십육억 칠천만 년 뒤에 나타날 거라 하는데 앞날을 기다린다 하니가 사람 마음에 꼭 들어서 한국 땅 웬만한 곳에는 이 미륵불이 있을 정도입니다.

전에 만화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이 풍선을 하나씩 손에 들고 가는데 모두 입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기분 좋게 해 주는 행복풍선인데 값은 한국 돈으로 천원이고 유효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일 불도 안 되는 돈으로 한 주 내내 기분이 좋아진다니 대단한 물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풍선이 실제로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로또 복권이라고, 그거 하나만 사면 추첨하는 날까지 한 주간 내내 기분이 좋답니다. 뭔가를 기다린다는 건 누구에게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앞날에 호소하는 방법 가운데 극단적인 게 시한부 종말론이겠지요. 예수 재림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정확하게 무슨 날 일어난다 하고 예언을 하니가 사람들은 한편 긴장도 되지만 한편 호기심도 생깁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씩 둘씩 생기면서 가속도가 붙고 그러면 십수년 전 한국처럼 난장판이 됩니다. 이 미국도 바로 지난해 해롤드 캠핑이라는 사람이 재림 날짜를 처음 오월이라 했다가 불발되니까 시월로 연기하고 그것도 불발되니까 “계산이 틀렸나?” 한 마디 하고는 은퇴해 버렸습니다. 이거 하나로 주님 영광을 참 많이 가렸는데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이 실패한 게 시기를 너무 일찍 잡아 그렇다 싶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오십육억 칠천만 년 가운데 오십육억은 빼고 나머지 칠천만 년만 내세웠어도 상당히 버틸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끝난 기다림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다리는 삶으로 설명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사람이면 다 기다리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런 점에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문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영동한 걸 기다립니다. 돈이 없어 힘들다 생각하는 사람은 일출봉에 해 뜨듯 돈 나무에 돈 열릴 날만 기다리겠지요? 몸이 아파 불행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을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몸이 약해서도 아니고, 부모를 잘못 만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정전이 돼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가 바로 내 안에 있는 이것, 내 본성,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도 있고 다른 사람 속에도 있고 사람이면 누구나 있는 이 죄가 모든 문제의 원인인 줄 압니다. 이 죄가 개인을 타락시키고 가정이나 직장을 뒤집어엎고 이 세상을 싸움판으로 만듭니다. 그러니 진짜 문제는 돈 좀 생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전기가 다시 들어오니까 살 것 같지요? 그렇지만 한 시간도 안 돼서 금방 잊습니다. 언제 전기를 기다렸던가 싶지요. 전기만 들어오면 온 세상이 환해질 것 같더니 전기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돈 걱정, 건강 걱정, 아이들 걱정, 하나라도 줄어든 게 있습니까? 다 그대로지요.

우리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알았고 또 그 해결책도 알았습니다. 없을 때 기다리는데 우리는 이미 있습니다. 은혜지요? 참 재미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그 귀한 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도 몰랐습니다. 구원도 그런 식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었는데 아, 내가 죄가 많구나,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겠지? 예수 저 분 팬잖아 보이네, 믿어볼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로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도 알고 우리 주님이 나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도 압니다. 잃을 때는 아차, 했지요? 얻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와! 세상에! 믿는 순간까지도 몰랐는데 믿고 나니 형제도 이런 형제가 없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얻었으니 이제는 안 기다립니다. 없을 때는 우리도 싸웠습니다. 본문 표현대로 원망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안 합니다. 모자라야 할 텐데 이미 가졌으니 안 합니다. 지금 원망한다면 그건 아직 얻지 못했다는 뜻이요 그렇게 못 얻은 사람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도 기다림

남들 기다리는 것 우리는 안 기다립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도 기다린다 했습니다.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모르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알고 기다립니다. 사람이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미 얻었기 때문에 얻은 그걸 기다리는 확실한 기다림입니다.

본문에 “길이 참으라”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길게 참아라, 오래 참아라, 하는 말입니다. 재미있습니다. 두 주 전에 본 말씀에서 하나님은 “오래 안 참고 금방 해결해 주신다” 했는데 우리한테는 오래 참으라 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래 참으라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오래 참아야 된다 가르칩니다.

농부를 빗대 말씀하십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씨 뿌릴 때 한 번, 또 추수하기 전에 한 번 이렇게 비가 와야 곡식이 잘 자라고 잘 여문다고 합니다. 씨는 직접 뿌리지만 비는 하늘만 쳐다봐야 됩니다. 기다리는 거지요. 때로 좀 늦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이, 비가 안 오네, 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정작 기다리는 건 비가 아니라 열매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꼭 얻어야 됩니다. 포기 못 합니다. 그러니 비도 포기를 못 하는 거지요.

마음을 굳게 하라 했는데 양초처럼 만들라는 뜻입니다. 기름은 흐물흐물하지만 밀랍은 단단합니다. 그렇게 굳게 하라 했습니다. 이번 정전 때 양초 많이 켜셨지요? 그렇게 녹을 때 말고 지금처럼 안 켤 때의 단단한 양초처럼 마음을 확고하게 고정시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녹이니까요. 세상도 기다리지만 우리하고 기다리는 게 다릅니다. 세상이 흐물흐물 한다고 우리도 거기 녹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은 모르는 걸 기다리고 우리는 아는 걸 기다립니다. 세상은 못 가져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지만 우리는 이미 가졌으니 기다리면서도 안 싸웁니다. 그래서 양초처럼 굳게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재림을 기다리라

우리가 기다릴 것은 우리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도 세 번 나옵니다.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천 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곧 다시 오마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실 날, 약속으로 얻은 이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했습니다. 얼마나 가깝습니까?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다 했습니다. 똑똑 소리가 나면 끝입니다. 시간의 차원에서 볼 때 이틀이면 우리는 여기 있고 재림은 저 멀리 있어 그 재림을 향해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재림과 우리는 기차의 두 선로처럼 나란히 달립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되는 순간 레일 두 개가 하나가 되고 우주의 역사는 끝이 날 겁니다. 가깝지만 아직은 아니고, 오래 참아야 되지만 언제 노크하실지 모르고, 이런 긴장이 있는 게 우리 주님의 재림이고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삶입니다.

기다리는 삶이 어떤지 지난 주간 잘 경험하셨을 줄 압니다. 불편하지요. 먹고 입고 자는 모든 게 불편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몰라 답답하고, 전화도 배터리 충전이 어려워 정말 용건만 간단히 하고 끊어야 되고, 서로 사는 게 불편하다 보니 짜증도 늘고 식구끼리 긴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핍되어 그렇고 기다리는 게 안 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며 사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기다림이요, 결핍입니다. 약속하신 구원이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나그네로 영거주춤 삽니다.

믿음 소망 사랑

정전될 때 무엇부터 하라 말씀드렸지요? 예, 감사부터 드리라 했습니다. 왜요? 있을 때 했어야 될 감사 얼마나 많이 빼먹었습니까? 없어지고 나니 알겠지요? 그래서 “아차” 감사지만, 안 드리는 것보다 나오니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빼앗긴 다음 뒤늦게 알고 드리는 감사와 더불어, 빼앗긴 그 자체, 결핍된 그 상태를 두고 드리는 감사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언가가 없는 그 상태, 그래서 기다리는 그 상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결핍이 있습니다. 모자랍니다. 남들 겪는 아픔도 다 겪지만 남들 안 겪는 고난도 있고 사람들의 조롱이 있고 때로는 박해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 결모습은 결핍이요 모자람인데 진짜 뜻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했지요? 있을 때야 당연히 감사하지요. 그런데 없을 때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없어서, 없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라야 됩니다. 결핍 그 자체가 은혜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다립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질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구원과 부활과 영생의 그 날을 기다립니다. 기다릴 때는 모든 게 어중간합니다. 생활인지 생존인지 대충 삽니다. 그런데도 그 삶이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것은 우리의 현재를 그렇게 어중간한 현재로, 모자라는 현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 영생의 복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허리케인 덕분에 다시 한 번 배웠습니다. 기다리는 건 모자라기 때문인데 우리는 뭐가 진짜 필요한지 알았지요, 그 필요한 것도 사실 이미 얻은 거나 다름없지요, 그리고 우리 현재가 어중간한 상태가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은 좀 불편해도 불평하지 않고, 길이 참으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난 주간의 경험을 말씀으로 잘 버무려 구원의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살도록 합시다. (권수경 목사)